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전국 최하위권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여건 등의 영향으로 이주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6명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 의당 주승용(전남 여수) 의원은 10월31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 10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주민 2022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을 조사한 결과 10개 혁신도시 중 정주여건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산도 100점 만점에 61점에 그쳤고 전국의 혁신도시 평균 점수는 52.4%로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48.9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9위로, 40.9점을 받은 충북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0개 도시 중 48.9점...10명 중 6명 자녀와 별거 주승용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원 소홀한 결과”

부산에 이어 경북(56.8점), 강원(54.4점), 전북(54점), 경남(53.9점), 울산(52.6점), 대구(50.9점), 제주(50.4점)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주거환경(54점·9위)과 여가활동환경(41점·9위), 교육환경(49점·8위) 분야가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나주혁신도시는 정주여건에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여가활동 환경'이었다.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은 평일보다 주말에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영화관'과 '스포츠타'가 가장 많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주 직원 중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55.3%가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떨어져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집과 학교 간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전남혁신도시 교통·환경 분야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대중교통 배차간격 조절'이 필요하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의 낮은 정주여건 만족도는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4명 이상이 '기러기 아빠'가 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는 결과로 나

타했다.

혁신도시 정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로 2003년 노무현 정부시절에 시작한 정책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정책이 소홀해진 결과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나 홀로 이주"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혁신도시 활성화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가족동반이주를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국토부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옮겨 살 수 있도록 부족한 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日아파트서 시신 9구 발견...20대 男체포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시의 한 아파트에서 시신 9구가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월31일 NHK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최근 2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전 이 아파트 방에서 절단된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27세 남성을 체포했다.

현재까지 이 아파트 현관에 놓인 아이스박스 안에서 2구의 시신 일부가 절단된 채 발견됐으며, 이외에도 시신이 담긴 아이스박스 여러 개가 발견되는 등 총 9구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도쿄 하치오지(八王子)시'에 사는 28세 여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여성이 문제가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다 해당 아파트에서 시신 여러 구를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이 여성이 인터넷상에 "자살을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해당 남성과 알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 지난달 23일 JR하치오지역 및 남성의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에 잡히기도 해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국 외무부, 인락 전 총리 여권 취소

태국 외무부가 10월31일 지난달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영국으로 도피한 인락 전 총리의 태국 여권을 취소시켰다. 인락 전 총리는 자신을 징역형에 처하려는 것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부사단 산티피타스 태국 외무부 대변인은 세계 각국의 태국 대사관들이 외국 정부들에 대해 인락 전 총리는 더이상 태국 여권 소지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인락 전 총리는 2개의 개인용 여권과 2개의 외교용 여권 등 모두 4개의 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축출된 인락 총리는 지난 9월 필리핀 재판에서 과도한 쌀 보조금 지급으로 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판결 직전 도피했으며 현재 영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태국 외무부는 비자를 받는데 수주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태국인들의 경우 여권을 여러 개 소유하는 것은 건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유타대학서 총격사건 최소 1명 숨져

미국 유타 주 유타대학에서 10월30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얼굴에 문신을 하고 검은색 옷을 입은 백인 남성이 이날 유타대학 캠퍼스 안에서 총기를 발사했다. 현재 상황은 안정되고 있다.

유타대학 측은 재학생 모두에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즉각 대피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버지니아 주 피터스버그에 있는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한 명이 총상을 입었다.

벨라루스에 허리케인 강타, 초속 22미터 강풍

벨라루스에 허리케인 게르바르트가 닥쳐왔다고 기상청이 10월30일(현지시간)자로 전국에 허리케인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다.

기상에보관들은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각지에 강풍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으며 이는 국토를 가로지르는 사이클론의 영향 때문으로, 최고 초속 22미터에 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초속 24m에 이르고 있다.

허리케인 게르바르트는 이날 벨라루스 일부지역에 폭우와 진눈깨비를 쏟아낸 뒤 이후에는 동쪽으로 러시아를 향해 이동하면서 서서히 약화될 것으로 예보되었다.

이 허리케인은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유럽 5개국을 거쳐 벨라루스에 이르렀다.

전남지역 어업지도선 절반 20년↑ 노후 선박

바다 위 무법지대를 단속해야 할 전남 지역 어업지도선의 절반 가까이 연령 20년이 훨씬 넘는 노후 선박으로 나타났다.

10월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별 어업지도선은 모두 78척으로 집계됐다.

이중 내구연한이 20년이 넘는 지도선은 44척(56.4%)에 달하며, 전남은 10년 미만 선박이 3척, 10년 이상~20년 미만은 7척, 20년 이상은 8척으로 확인됐다.

전남 지역의 20년 넘는 노후 지도선 보유량은 경남 지역 9척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10년 이상~20년 미만과 20년 이상 선박 보유량은 15척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지도선의 노후화 진행 속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시·도가 운영·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국가어업지도선과 함께 바다 위 불법조업, 무면허·무허가 어선,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박 노후화 등으로 2016년 기준 11개 시·도 지역에서 이뤄진 연간 단속 실적은 50건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바쁘게 돌아가는 제설기 10월 31일 오전 강원도 평창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자 용평리조트에서 올 가을 들어 첫 제설을 시작했다.

한빛원전 6호기 보조건물 구멍 “콘크리트 다짐 불량”이 원인

한빛원전 6호기(가압경수로형·100MkW급) 보조건물 내벽에서 발견된 공극(빈공간)은 4호기 방호벽 구멍 발생과 같은 이유로 밝혀졌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6호기 보조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뤄진 6호기 건설 당시 콘크리트 다짐 불량”이 원인”이라고 10월 31일 밝혔다.

한빛 6호기 보조건물 공극은 지난달 28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 중인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다.

원안위 첫 점검 대상인 한빛 6호기 구조물 특별점검은 격납건물, 보조건물, 핵연료취급건물 등 모든 안

전과 관계되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빛 6호기는 지난 7월13일부터 제1차 계획예방정비도 함께 받고 있다.

한빛 6호기 보조건물 공극은 원안위가 주중기 격리 밸브실(Main Steam Isolation Valve Room)과 주중기 격실(Main Steam Enclosure Room)을 대상으로 육안검사와 레이더 탐상검사 등을 통해 결함 의심 부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원안위는 의심 부위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내시경을 투입해 콘크리트 공극을 최종 확인했다.

발견된 공극에 대해서는 구조적 건전성 평가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규제기관의 최종 안

정성 확인을 거쳐 재가동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6호기 보조건물은 원자로 운전계통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방사능 누출 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7일에도 제16차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한빛 4호기의 콘크리트 방호벽 일부가 비어 구멍이 발생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빈 공간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 한빛 4호기 건설 당시 콘크리트 타설이 일부 뜸뎠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영평=서희권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